

한국 대학생의 성역할정체감과 성차별의식 및 군대에 대한 태도에 관한 연구

심 미 혜[†]

ENDO YUMI

간사이대학

본 연구는 317명의 대학생을 군필과 미필, 여성 세 집단으로 분류하여 군복무 경험과 군사 이데올로기가 한국 대학생들의 군대에 대한 태도와 성역할정체감, 그리고 성차별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 군대와 성차별 문제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첫째, 군복무 경험은 성역할정체감이나 성차별의식을 강화하는데 보편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남성성이 강한 남성에게 군복무 경험은 남성성과 온정적 성차별의식을 강화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둘째, 미필보다는 군필과 여성 집단이 군대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이었다. 셋째, 군복무 경험의 유무와 성차에 관계없이 군대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인 사람이 여성에 대한 온정적 성차별의식이 높았다. 넷째, 세 집단 모두 적대적 성차별주의와 온정적 성차별주의 사이에 뚜렷한 정적 상관을 보였지만 집단 간 상관에 유의한 차는 보이지 않았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성차별의식은 군복무 경험을 통해 강화되기도 하지만 군대에 대한 이데올로기와도 관련 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요어 : 군복무 경험, 성역할정체감, 성차별의식, 적대적 성차별주의, 온정적 성차별주의

[†] 교신저자 : 심미혜, 일본간사이대학 심리학과 박사과정
E-mail : forgrace99@hotmail.com

우리 사회에 양성평등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보고들¹⁾에 따르면 한국은 여전히 여성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이 강한 나라로 알려져 있다. 외국의 지표뿐만 아니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연구²⁾에서도 최근 몇 년간 한국의 남녀 간 불평등 수준은 거의 좁혀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가 발표한 2010년 남녀고용평등국민의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48.5%가 “직장 내 성차별이 심각하다”고 대답했다. 성차별이 ‘심각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여성이 60.4%로 남성 57.9%보다 높았지만 차이는 크지 않았다. 100대 기업 중 근로자 500명 이상인 95개 기업의 고용 현황(2009년 12월 기준)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전체 근로자 76만 3751명 가운데 여성은 17만 4830명으로 22.9%였다. 이 중 여성 관리자는 5190명으로 전체 관리자 7만 3352명의 7.1%에 그쳤다. 여성 임원 역시 6189명 중 69명으로 1.1%에 불과했다³⁾. 김혜숙과 장재윤(2002)은 여성 공무원 리더들의 성정체감과 삶의 만족도를 조사하여 조직 구성원들의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과 차

별적인 조직 문화가 여성 공무원 리더들의 성정체감과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결과들은 한국이 교육수준이나 국민소득이 높은 것에 반해 남녀평등에 있어서는 아직도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사회심리학에서는 이러한 남녀의 격차가 생기는 요인의 하나로 여성에 대한 편견인 성차별주의(sexism)를 지적해 왔다(Goodwin, Fiske, 2001). 편견이 인지나 감정과 같은 내적인 측면이라면 차별은 행동적인 측면으로, 성차별은 남성 혹은 여성이라는 성별 때문에 개인이 마주하는 불평등이다.

성차별주의와 성역할정체감

Glick과 Fiske(1996)는 여성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나 태도가 중심적인 기존의 척도들과는 달리 양면가치적성차별주의 이론(ambivalent sexism)을 통해 성차별에는 여성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나 태도(적대적 성차별주의, hostile sexism) 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감정이나 태도(온정적 성차별주의, benevolent sexism)도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적대적 성차별주의는 “여성은 결단력이 부족하고 문제해결능력이 없다”는 편견을 가지고 여성이 직장생활에 적합하지 않다는 생각을 합리화하며, 경제적인 사정으로 여성도 어쩔 수 없이 일을 해야 하지만 기본적으로 여성의 사회진출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온정적 성차별주의는 표면적으로는 여성을 보호해야할 대상으로 여겨 여성을 존중하는 듯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남성이 여성보다 더 우월하다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다. 여성을 보호하는 기사도적인 태도는, 여성이 어머니로서 아내로서의 전통적인 역할을

1) 2009년, UNDP(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 보고서에 따르면 GDP, 평균수명, 유아사망률, 교육수준 등으로 산출되는 인간개발지수(HDI: Human Development Index)의 경우, 한국은 182개국 가운데 26위를 기록한 반면, 여성권한척도(GEM: Gender Empowerment Measure)는 109개국 중 68위에 머물렀다. 또한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2009 글로벌 성(性) 격차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올해 성 평등 순위는 전체 134개국 가운데 115위로 최하위에 가까웠다

2) 가족복지, 보건, 경제활동, 의사결정, 교육 직업 훈련, 문화정보, 안정 등 8개의 부분 21개 지표에 가중치를 반영해 산출한 성평등 점수

3) 2010년 10월 13일자 동아일보

잘 감당해야 한다는 범위 안에서 유지된다. Glick(1996, 2001) 등은 적대적 성차별주의와 온정적 성차별주의에는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으며, 적대적 성차별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수록 온정적 성차별의식 가지고 있음을 밝혔다. 또한 일련의 연구를 통해 적대적 성차별주의가 강한 사람일수록, 직장여성과 같이 전통적 성역할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여성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온정적 성차별주의가 강한 사람일수록 가정주부와 같이 전통적 성역할에 충실한 여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하였다.

김혜숙, 안상수, 안미영, 고재영, 이선이, 최인철(2005)도 적대적 성차별주의와 온정적 성차별주의가 여성 하위 집단(전문직여성, 윤락녀, 가정주부 및 여성상담가 집단)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 온정적 성차별주의가 기존 의미의 성차별주의와는 다른 새로운 형태의 성차별주의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남성 집단은 적대적 성차별주의가 높아질수록 비전통적 여성 집단들에 대해 전통적 여성 집단보다 더욱 부정적인 태도를 취했으나 여성 집단은 온정적 성차별주의가 높아질수록 가정주부, 여성상담가 및 전문직 여성의 하위집단에 대해서는 긍정적 태도를 보였지만 윤락녀집단에 대해서는 부정적 태도를 보였다.

Viki, Abrahams, Hutchison(2003)은 온정적 성차별주의를 가지고 있는 남녀가 데이트를 할 때 ‘부성주의기사도(paternalistic chivalry)’ 정신이 발휘된다고 하였다. 부성주의기사도란, 남성이 여성을 보호하고 지켜야 한다는 생각으로, 온정적 성차별주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여성에게 예의 바르고 정중하게 대하지만 한편으로 여성의 행동을 제한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양면가치적성차별주의를 가진 사람은 여성이 성역할에 따라 행동하는가 아닌가에 따라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으로 평가하며 여성이 전통적인 성역할에 따라 행동하길 바란다.

성역할(Gender Role)은 어떠한 행위나 태도가 적절한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남성과 여성에 대한 문화적, 사회적 기대치를 말한다. 남성은 여성에 대해, 여성은 남성에 대해 기대하는 성역할이 있으며 그것이 오랜 시간 동안 사회속에서 암묵적으로 인정되어왔다. 남성은 중심적이고 주체적인 역할을 담당하며 여성은 주변적이며 사소한, 보조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져 왔다. 과거에 훌륭한 성인 남자는 남성성이 강하고, 훌륭한 성인 여자는 여성성이 강한 사람이었다. 역사적으로 남성적인 특징이 여성적인 특징보다 더 가치 있게 여겨졌다.

성역할 발달에는 생물학적, 인지적, 환경적 요인들이 모두 중요한 부분을 담당한다. 사회 인지 이론에 따르면 부모와 교사, 친구, 사회가 개인에게 어떻게 반응하고 어떤 태도를 보이며 무엇을 보여주는가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또한 주변 환경과 한 나라의 문화는 개개인의 성역할에 영향을 미친다. 田島(2005)는 성역할 발달이 각 문화에서 젠더의 가치와 규범을 재생산하는 기능을 담당하지만 개인은 성역할에 관한 가치와 규범을 무조건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하여 성역할에 대한 문화적 정의를 수정하며 특히 청년기 이후에는 독자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한국 남성들은 일반적으로 목표 지향적, 성취 지향적이어서 지도적 위치에서 직업적인 역할을 수행하는데 적합한 독립성과 지배성, 통제력을 소유하고 있으며 권위적이며, 과묵

하고 포용력이 있으며 무뚝뚝하여 감정을 잘 표현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반면, 여성들은 복종적이며 가정 내에서 가사를 돌보는 데 적합한 성격 특성들인 동정심, 의존성, 언어지향성, 내성적, 감정적인 특성들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김영희, 1988; 정진경, 1990). 한국여성에게 적용되는 사회문화적 규범 연구한 김지영과 김기범(2005)은 여성스럽지 못하거나 여자가 해서는 안 되는 행동목록 중에, 일반적으로 남성들에게는 비교적 관대하게 허용될 수 있는 행동이 많았고, 여성이 그러한 행동으로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평가를 받게 되면 심리적으로는 부끄러움이나 심리적 불편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나 여성들이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 행동에 제지를 받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한국사회의 군사문화와 여성에 대한 차별의식

한국은 전통적으로 “남존여비”의 보수적인 유교사상이 유지되어 온 나라이다. 이러한 전통적인 유교사상은, 한국전쟁 이후 강한 나라를 만드는 수단이 된 군사이데올로기와 결합되어 남성 중심적인 국민정체성을 형성하는 핵심이 되었고(김현영, 2002), 이 과정에서 여성은 억압과 통제의 대상이 되었다(오미영, 2001). 이미경(2003)도 분단이 사회 내 군사주의와 군사문화를 조성하였으며, 이로 인해 가해지는 여성에 대한 차별과 억압이 오랜 시기 한국 사회를 지배하고 있던 성차별적인 유교적 가부장제 이념과 결합되어 심화되었다고 분석한다. 나아가 가부장제에 의한 여성 억압은 외적으로 쉽게 드러나지만 징병제에 의한 가부장적 이데올로기는 나라를 지키는 남성의 영웅적 면모, 희생적 측면에 가려져 있으며

내적으로 사회 전반적인 의식을 지배해 직접적으로 남성을 억압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여성을 억압하는 간접적인 기제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남성 섹슈얼리티의 사회화 기제로서 군대의 성문화를 연구한 유혜정(2006)은 남성성이 강화된 군대 성문화에서 사병들의 성적 경험과 성적 태도는 가부장적으로 강화되고 있으며 사병들은 여성 섹슈얼리티를 대상화하고 억압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수용하고 있다고 하였다.

장용선(1991)은 군대조직을 국가라는 더 큰 사회의 안전보장을 위해 특수한 상황과 조건 속에서 특수한 방법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특수한 구조를 가진 사회적 단위라고 정의한다. 군대는 임무수행의 방법적 측면으로 집단성과 계급의 권위, 위계질서 그리고 강제성과 타율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시간적, 공간적, 심리적인 단절과 격리를 통해, 과거의 시민사회, 과거의 자신의 지위와 업적, 자신의 상식과 가치관 등으로부터 변화되어 군인으로서의 자기 주체성을 인식하도록 한다.

무엇보다 군대라고 하는 공간은 여성과 남성에게 요구되는 사회적 성역할을 규정할 수 밖에 없는 특수한 환경이다. 힘든 군사훈련을 이겨내기 위해서 강한 남성성을 주입하고 남성에게 여성을 지키는 수호자로서의 의미를 부여한다. 그 결과 여성은 보호받는 존재, 약한 존재로 형상화되고 말았다.

군대의 남성문화에 대한 비판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군대가 상명하복을 내면화해 복종적 심성을 만들어내는 곳(사랑, 1993)으로, 왜곡된 여성상의 학습장(조성숙, 1998, 장필화 조형: 1991)으로 비판 받아 왔다. 권인숙(2009)은 군대를 통해서 얻어진 남성의 희생과 보상 의식, 여성차별의 정당화의식, 가장의식, 성차

별적 분업의식이 아직도 한국 사회에서 여성의 삶을 규정하는 중요한 문제이며 여성이나 장애인 등 다른 소수자들의 사회적 약자로서 겪는 문제를 도외시하는 경향을 낳고 있다고 했다.

한국사회의 군사 문화적 성격은 군대라고 하는 조직뿐만 아니라 교육 현장이나 사회와 같은 다양한 조직 속에서 개인의 의식과 삶 속에서 일상적으로 반영되어 왔다(이민주, 1995, 오미영, 2001, 박진환, 2004). 그리고 지금까지도 우리 사회는 남성조직의 기본 틀로 작용되고 있는 군대문화를 중요하게 여기고, 의미를 부여하며, 집단주의를 통한 개인의 희생, 남성 중심의 위계 서열적 사회를 정당화시켜주는 담론들을 지속적으로 작동시키고 있다(장필화, 1991, 박진환, 2004)

이와 같은 연구들은 우리 사회의 군사 이데올로기가 남성과 여성의 성역할을 고착화하며 나아가 여성에 대한 차별 의식을 강화한다는 것에 동의한다. 그러나 이러한 비판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이념적인 이데올로기나 페미니즘의 입장에서 분석된 연구들이 중심을 이루었고 이들의 입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실증적인 연구가 부족하였다. 또한 군대의 개혁과 젊은이들의 의식 변화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재검토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군대 문화를 직접 경험한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이 공존하며 군대 문화에 대한 담론이 끊임없이 재생산되는 대학교를 중심으로 군복무 경험과 군사 이데올로기가 대학생들의 군대에 대한 태도와 성역할 정체감, 그리고 성차별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 군대와 성차별 문제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대상은 군필자와 미필자, 그리고 여성 세 집단으로 분류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군복무 경험은 군필자의 남성성과 여성에 대한 성차별의식, 군대에 대한 태도를 강화하는가.

둘째, 성역할 정체감과 성차별의식, 군대에 대한 태도는 군필과 미필, 여성 집단이 어떻게 다른가.

셋째, 성역할 정체감은 군대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가.

넷째, 군대에 대한 태도와 성역할 정체감은 성차별의식에 영향을 미치는가.

방 법

연구 대상

2009년 11월, 서울과 천안 소재 4년제 대학 세 곳에서 남학생 172명과 여학생 166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표집하였다. 이중 연령이 30세를 넘거나 불완전한 응답자를 제외하여, 총 317명(남156명, 여161명)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표 1). 본 연구에서는 일반 사회와의 단절을 경험한 집단을 전제로 남성의 군필 유무를 현역에 한정하였으며 공익근무나 군복무 대체자는 미필로 분류하였다.

표 1. 조사대상자

	군필	미필	여성	계
인원수	70	86	161	317
평균연령	24.6	20.0	20.7	

측정 도구

성역할 정체감

김혜례(2003)가 제작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각각 18개의 남성성과 여성성 문항 그리고 성역할과 관계없는 14개의 중립적 성격 특성들로 이루어진 5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기존 척도에서 사용된 4개의 성격 특성(남성성 여성성 양성성 미분화)으로 나누지 않고 남성성과 여성성의 점수만 사용하였고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까지 7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남성성과 여성성의 성향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성역할 정체감 척도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남성성 .865, 여성성 .805로 높은 수준의 내적 일치도를 보였다.

성차별주의

성차별주의 척도는 안상수, 백영주, 김인순, 김혜숙, 김진실이 개발한 한국형 다면성별의식검사(2007)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적대적 성별의식과 온정적성별의식 각각 1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에 기혼 여성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몇 가지 문항을 더 추가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고 최종 2개의 요인, 적대적성차별주의(HS)와 온정적차별주의(BS) 각각 29개의 문항으로 확정하였다. 추가된 문항은, “모든 일에서 남편이 아내를 리드하는 것이 좋다”, “아내는 친정보다 시댁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 “가정의 중요한 일은 남편이 책임을 지고 결정하는 것이 좋다”, “아내에게 생활의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하는 것이 남편의 의무이다”, “경제적 여유가 있다면 아내는 직장에 나가지 않는 편이 좋다”의 5개 문항이다. 7점 척도로 구성하였는데 높은 점수

일수록 성차별주의가 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성차별주의 척도의 내적일치도 계수는 HS .921, BS. 874로 높았다.

군대에 대한 태도

군대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기 위한 척도는,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자료들⁴⁾을 참고하였다. 1978년도 육군본부조사의 “제대자의 군복무에 대한 태도” 5문항, “젊은 나이에 2년씩이나 군에서 보낸다는 것은 개인에게는 큰 손해이다”, “어떤 사람들은 군복무 기간을 별로 배우는 것이 없이 2년을 보내는 허송세월기간이라고 한다”, “군대생활은 자신이 노력하기에 따라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 “아무래도 군에 다녀온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생활력이 강하다”, “군에 다녀오면 철이 나고 점잖아진다”와 현대사회연구소가 “군복무가 의식, 태도에 미친 영향” 조사에서 사용한 사회적 측면과 개인적 측면에 관한 문항 중 20개의 문항을 선택하여 요인을 분석하고 추출된 두 개의 요인(군대에 대한 태도 I, II)을 사용하였다.

두 번째 요인 4개의 문항은 역부호화 문항이다. 다른 척도들과 마찬가지로 7점 척도 상에서 응답하게 하였다. 높은 점수일수록 군대에 대한 태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내적 일치도 계수는 군대에 대한 태도 I, II 각각 .933, .817이었다.

결 과

요인분석

4) 장용성(1991), 군복무가 후기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 백종천, 국가방위론 p.601-602에서 재인용

성차별주의의 설명 분산 비율이 50.58%로 3요인구조가 타당하다고 판단, 3요인을 가정하고 주요인, 먼저, 성차별척도 30항목에 대해 주요인분석(principal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고유치의 변화(10.78, 2.81, 1.58, 1.57...)와 3요인까지 Promax 회전에 의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낮은 부하량(.35 이하)을 보인 한 개의

표 2. 성차별주의 요인분석(N=317)

내용	I	II
	a.921	a.874
6. 여성은 감정적으로 불안하여 큰일을 맡기기 어렵다	.877	-.160
20. 여성은 남성에 비해 결단력이 부족해서 중요한 직책을 잘 수행하지 못한 다	.874	-.076
19. 우리 사회를 위해 할 일이 많은 만큼 여성보다 남성에게 더 많은 결정권을 주어야 한다	.868	-.170
5. 여학생보다는 책임질 줄 아는 남학생이 학급반장이 되어야 학급운영이 더 잘 된다	.860	-.177
4. 남성이 세상을 이끌어 가는 것이 마땅함에도 여성들은 항상 불평을 늘어놓는다	.774	-.088
30. 모든 일에서 남편이 아내를 리드하는 것이 좋다	.687	.098
21. 여성이 먼저 성적으로 유혹하고서는 마음에 들지 않으면 성희롱이라고 주장한다	.650	.035
3. 남성에 비해 여성들은 기분이 쉽게 상하는 편이어서 업무처리가 합리적이지 못하다	.615	-.041
29. 아내는 친절보다 시택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	.580	.104
7. 여성은 곤란하거나 부탁할 일이 있을 때만 남자를 찾는다	.537	.124
24. 여성들은 국방의 의무 등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서 자신들의 권리만을 내세운다	.536	.147
28. 가정의 중요한 일은 남편이 책임을 지고 결정하는 것이 좋다	.523	.286
14. 여성들은 남녀 간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무조건 평등만을 주장한다	.443	.190
15. 여성들은 데이트 비용은 모두 남성에게 떠맡기면서 비싼 명품들을 선호한다	.402	.229
26. 아내에게 생활의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하는 것이 남편의 의무이다	.081	.701
16. 추운 날씨에는 남자가 여자에게 옷을 벗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062	.675
22. 가벼운 짐일 지라도 여성에게 들리기보다는 남성이 들어주어야 한다	.026	.666
9. 여성은 남성에 비해 가정을 잘 돌보는 세심함을 지니고 있다	-.087	.666
8. 좁은 길에서 남녀가 마주치면 남성이 먼저 길을 양보해야 한다	-.017	.621
2. 신체상 위험 부담이 큰일은 여성보다 남성이 감당해야 한다	-.218	.595
11. 여성은 자녀를 기르고 집안일을 돌보는 능력이 있다	-.021	.565
17. 방과 후 반겨 줄 엄마가 집에 있어야 아이들의 정서교육에 좋다	-.050	.560
27. 남편에게 사랑 받는 것이 아내의 가장 큰 행복이다	.224	.548
23. 남성은 이지적이고 여성은 감성적이므로 그에 맞는 일을 할 때 남녀가 조화를 이룬다	.198	.511
25. 경제적 여유가 있다면 아내는 직장에 나가지 않는 편이 좋다	.335	.458
요인 간 상관		. 612

항목(1. 여성은 자신의 미모를 이용해서 남자들을 부러먹는다)을 제외하고 남은 29개의 항목에 대해 다시 주요인, Promax 회전에 의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각각 14개와 11개의 항목으로 구성된 제1요인과 2요인은, 기본 척도로 사용된 한국형 다면성별의식검사의 적대적 성차별의식(HS)과 온정적 성차별의식(BS)의 항목과 일치하였다. 제3요인은 기존 척도의 온정적성차별주의 하위항목인 “친밀한 이성애”에 해당하는 4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제3요인을 제외한 두 개의 요인을 사용하기로 하였다. 제3요인을 제외한 최종적인 요인구조와 요인 간 상관은 표 2에 제시하였다.

군대에 대한 태도

군대에 대한 태도 20개 항목에 대해 Promax 회전에 의한 주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고유치의 변화(8.60, 2.23, 1.26...)로 3요인 또는 2요인 가정으로 분석이 가능하다 판단해 두 가지

표 3. 군대에 대한 태도 요인분석(N=317)

내용	I	II
	a.933	a.817
11. 장래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된다	.821	-.056
17. 부모님이나 친구의 소중함을 알게 된다	.794	-.172
12. 인내심과 생활력이 강해진다	.782	-.166
18. 건강의 중요성을 알게 된다	.780	-.119
16. 몸과 마음이 강건한 남자가 된다	.778	.023
10.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기회가 된다	.766	.011
14. 가족이나 애인과 떨어져 있는 경험을 통해 성숙해 진다	.746	.082
9. 힘든 군대훈련은 앞으로의 삶에 도움이 된다	.746	.047
13. 자신감이 생긴다	.743	-.050
19. 다양한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 생각의 폭이 넓어진다	.655	.030
20. 군대에 갔다 와야 진짜 남자가 된다	.562	.189
8. 한국인으로서의 책임감이 생긴다	.562	.138
15. 이성애에 대한 가치관이 바람직하게 바뀐다	.515	.201
1. 군대에 갔다 오면 철이 든다	.495	.058
2. 군대에 가지 않은 사람은 아직 미숙하고 뭔가 부족하다	.487	.150
7. 군대에서 본인의 노력에 의해 여러 가지 기술을 배울 수 있다	.458	.138
*4. 젊었을 때 2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군대에서 보내는 것은 개인적으로 큰 손해다	-.129	.859
*6. 군대에서 보내는 시간이 아깝다	.006	.845
*3. 군대에 가지 않아도 된다면 가고 싶지 않다	.023	.678
*5. 군대 갔다 오면 바보가 된다	.166	.483
요인 간 상관		.404

*은 역부호화 문항

가정을 각각 시도하였다. 3요인 분석의 경우, 1요인과 2요인 사이의 상관계수가 .705로 매우 높아 2요인 분석 결과로 최종 선택하였다. 2요인 분석의 설명 분산 비율은 54.14%, 요인간 상관계수는 .404로 나타났다.

제1요인으로 분류된 문항은 모두 14개로 군복무의 긍정적인 태도에 관한 질문으로, 4개의 2요인 문항은 군복무의 부정적인 태도에 관한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다(표 3).

기술통계량

군필자, 미필자, 여성 세 집단의 성역할정체감(남성성, 여성성), 군대에 대한 태도, 적대적 성차별주의와 온정적 성차별주의 합계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4와 같다.

상관분석 및 상관유의차검증

군필과 미필 그리고 여성 집단의 남성성과 여성성, 군대에 대한 태도 그리고 적대적 성차별주의와 온정적 성차별주의와의 상관관계(r), 그리고 각 집단 상관의 차이를 보고자 상관유의차 검증(z)을 실시하였다. 결과는 표 5

에 제시하였다. 먼저 군필자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군필자의 남성성은 군대에 대한 태도 I 과 BS에 뚜렷한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r=.402, p<.01, r=.307, p<.01$) 군대에 대한 태도 II와는 약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249, p<.05$). 여성성과는 유의한 상관을 보이는 변수가 없었다. 군대에 대한 태도 I 는 군대에 대한 태도 II, HS, BS 세 변수에 모두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r=.525, p<.001, r=.283, p<.01, r=.400, p<.01$). 군대에 대한 태도 II는 BS와 약한 정적 상관이($r=.285, p<.05$), HS와 BS 사이에는 뚜렷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445, p<.001$). 따라서 남성성의 성향이 강한 군필자는 군대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이며 온정적인 성차별태도를 보인다는 것과 군대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성차별의식이 강하다고 정리해 볼 수 있겠다.

미필자의 상관관계에서 남성성은 여성성과 BS에 정적인 상관을 이루었다($r=.405, p<.01, r=.235, p<.05$). 특히 여성성과는 뚜렷한 정적 관계를 보였다. 남성성과 군대에 대한 태도 변수 사이에 정적인 상관을 보였던 군필 집단과는 달리 미필자의 남성성은 군대에 대한 태

표 4. 각 변인의 기술통계(N=317)

	군필자(70)		미필자(86)		여성(161)	
	M	SD	M	SD	M	SD
남성성	83.93	13.371	80.87	14.155	77.20	11.706
여성성	80.89	13.298	81.20	11.626	85.13	11.889
군태도 I	73.96	18.233	67.78	18.203	70.33	17.269
군태도 II	12.69	5.977	10.29	5.518	13.62	5.026
HS*	45.39	15.054	46.15	14.795	32.16	13.137
BS**	50.06	11.475	48.92	11.273	41.65	12.280

* HS, 적대적성차별주의, hostile sexism, ** BS, 온정적성차별주의, benevolent sexism

표 5. 각 집단의 상관관계(r)와 상관유의차검증(z')($N=317$)

		r			z'		
		군필자	미필자	여성	군필·미필	미필·여성	군필·여성
남성성	여성성	.181	.405**	.345**	-1.501	0.515	-1.212
	M1	.402**	.154	.206**	1.649	-0.397	1.489
	M2	.249*	-.198	.081	2.770**	-2.079*	1.188
	HS	.201	.182	-.018*	0.120	2.700**	2.646**
	BS	.307**	.235*	.032	0.473	1.530	1.956*
여성성	M1	.112	.026	.307***	0.526	-2.148	-1.404
	M2	.225	-.297**	-.024	3.258**	-2.082*	1.735
	HS	-.007	-.060	.015	0.323	-0.554	-0.151
	BS	-.143	.254*	.306***	-2.458*	-0.416	-3.156**
군태도1	M2	.525***	.335**	.381***	1.429	-0.389	1.248
	HS	.283*	.545***	.279***	-1.950*	2.395*	0.030
	BS	.400**	.482***	.557***	-0.621	-0.759	-1.405
군태도2	HS	.199	.221*	.243**	-0.140	-0.172	-0.317
	BS	.285*	-.006	.294***	1.821	-2.279*	-0.067
HS	BS	.445***	.617***	.615***	-1.472	0.024	-1.636

* $p < .05$ ** $p < .01$ *** $p < .001$

도와 유의한 상관이 없었다. 그러나 여성성과는 군대에 대한 태도II가 부적의 상관을 보이고($r = -.297, p < .01$), BS와는 정적인 상관을 보였다($r = .254, p < .05$). 군대에 대한 태도 I는 군대에 대한 태도II, HS, BS 세 변수에 뚜렷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r = .335, p < .01, r = .545, p < .001, r = .482, p < .001$). HS와 BS와의 사이에도 뚜렷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r = .345, p < .01, r = .206, p < .01$). 미필집단이 군대에 대한 태도와 HS 사이에, 군필이나 여성 집단보다 강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 주목할 만하다.

여성 집단의 남성성은 여성성과 군대에 대한 태도 I에 정적인 상관을 보였다($r = .345, p < .001$)($r = .206, p < .01$). 여성성은 군대에 대한

태도 I와 BS($r = .307, p < .001, r = .306, p < .001$)에, 군대에 대한 태도 I는 군대에 대한 태도II, HS, BS 세 변수에 모두 뚜렷한 정적 상관을 이루었다($r = .381, p < .001, r = .279, p < .001, r = .557, p < .001$). 그리고 여성 집단의 군대에 대한 태도II는 HS, BS($r = .243, p < .01, r = .294, p < .001$)에, HS는 군필자, 미필자 집단과 마찬가지로 BS와 뚜렷한 정적 상관을 보여 주었다($r = .615, p < .001$). 여성 집단의 여성성과 BS, 그리고 군대에 대한 태도와 BS와의 사이에는 남성 집단보다 강한 상관이 있었다.

다음은 각 집단의 상관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상관유의차검증(z')을 실시하였다. 군필과 미필집단 상관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것은 남성성과 군대에 대한

태도Ⅱ였다($z'=2.77, p<.01$). 즉, 남성성이 강한 군필자는 남성성이 강한 미필자보다 군복무가 시간 낭비가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미필자와 여성 집단에서도 나타났는데, 여성 집단의 남성성과 군대에 대한 태도에는 유의한 상관성이 없었지만 미필자의 태도와는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z'=-2.08, p<.05$). 남성성과 HS의 상관에서는 남성 집단 전체와 여성 집단에 유의한 상관의 차이($z'=2.70, p<.01, z'=2.65, p<.01$)를 보였다. 남성성이 강한 남성이 여성보다 적대적 성차별주의 경향이 강하다고 볼 수 있겠다. 남성성과 BS와의 관계에서도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는 여성 집단과는 달리, 군필 집단의 남성성은 온정적인 성차별태도와 뚜렷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z'=1.96, p<.05$).

여성성과 군대에 대한 태도Ⅱ에서도 군필 집단과 미필 집단의 상관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z'=3.26, p<.01$). 미필집단의 여성성과 군대에 대한 태도Ⅱ에 나타난 부적인 상관으로 보아 여성성이 강한 미필자가 군필자에 비해 군대경험이 시간낭비이며 군대에 갔다 오면 바보가 된다는 부정적인 태도를 취한다고 볼 수 있고 이러한 차이는 여성 집단과의 비교에서도 나타났다($z'=-2.08, p<.05$). 또한 여성성과 BS와의 상관관계에서도 군필 집단과 미필 집단에 유의한 차가 나타났다($z'=-2.46, p<.05$). 여성과 군필자와의 비교에서 여성성이 강한 여성이 온정적 성차별주의 태도가 강하며 이것이 두 집단 상관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z'=-3.16, p<.01$).

군대에 대한 태도 I와 HS 사이에 군필 집단과 미필 집단에 유의한 상관의 차이가 보였다($z'=-1.95, p<.05$). 군대에 갔다 와야 진정한 남자가 된다고 생각하는 미필자는 군필자보다

적대적 성차별주의가 높았다. 여성 집단과의 관계에서도 미필집단이 보인 상관의 차이가 더 높았다($z'=2.40, p<.05$). 군대에 대한 태도 I과 적대적 성차별주의와의 상관관계에서는 군대를 아직 경험하지 못한 미필집단이 가장 강하게 나타났다.

군대에 대한 태도Ⅱ와 온정적 성차별주의에는 미필과 여성 집단에서 상관의 유의한 차이가($z'=-2.28, p<.05$)있었다. 군복무가 시간낭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여성이 미필자보다 온정적인 성차별주의 태도가 강하게 나타났다.

세 집단 모두 뚜렷한 정적 상관을 보였지만 집단 간 상관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지 않는 변수는, 군대에 대한 태도 I과 태도Ⅱ, 군대에 대한 태도 I과 HS, BS와의 관계이다. 군복무 경험의 유무와 성차를 떠나 군경험이 한국 남성에게 유익한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군복무가 필요한 것이며 시간낭비가 아니라는 태도를 보인다. 또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수록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여성에 대한 성차별의식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HS와 BS의 상관에서도 집단 간 차이는 보이지 않았지만 각각의 집단 모두 HS와 BS 사이에 통계적으로 뚜렷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보아 우리나라 남녀대학생들의 성차별의식이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단순 및 중다회귀분석

남성성이 군대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기 위해 군필, 미필, 여성 세 집단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표 6). 분석 결과, 군필 집단에서 남성성은 군대에 대한 태도 I($\beta=.402, p<.01$)와 군대에 대한 태도Ⅱ($\beta=.249,$

표 6. 성역할 정체감과 군대에 대한 태도와의 관계

		군대에 대한 태도 1			군대에 대한 태도 2		
		군필자	미필자	여성	군필자	미필자	여성
남성성	β	.402**	.154	.206**	.249*	-.198	.081
	R^2	.161**	.024	.043**	.062*	.039	.007
여성성	β	.112	.026	.307***	.225	-.297	-.024
	R^2	.031	.001	.095***	.051	.088	.001

* $p < .05$ ** $p < .01$ *** $p < .001$

$p < .05$)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여성성은 군필과 미필집단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여성 집단의 경우, 남성성($\beta = .206, p < .01$)과 여성성($\beta = .307, p < .001$)이 군대에 대한 태도 I에 영향을 미쳤다.

남성성과 여성성 그리고 군대에 대한 태도가 성차별주의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7에 제시된 분석 결과를 보면 적대적 성차별주의(HS)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변수는 미필 집단의 군대에 대한 태도 I($\beta = .508, p < .001$)와 여성 집단의 군대에 대한 태도($\beta = .261, p < .01, \beta = .165, p < .05$)이며, 여성 집단의 남성성은 부적인 영향($\beta = -.257, p < .0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네 가지 변인이 적대적 성차별주의에, 미필 집단은 32.5%, 여성 집단은 16.0%의 설명력을 보였다. 반면 군필 집단에서는 HS에 대한 영향 변수가 없었다. 온정적 성차별주의(BS)에 가장 큰 영향 변수로는 적대적 성차별주의와 마찬가지로 미필과 여성 집단의 군대에 대한 태도 I($\beta = .504, p < .001, \beta = .471, p < .001$)였으며 여성 집단에서는 여성성이 BS에 정적인 영향($\beta = .216, p < .01$)을 미치는 반면 군필 집단에서는 부적인 영향($\beta = -.244, p < .00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BS에 대한 설명력은 군필 집단 24.7%, 미필 집단 30.5%, 그리고 여성 집단 36.3%이다.

마지막으로, 군대경험이 다양한 변수들에

표 7. 변수들과 성차별주의와의 관계

	HS			BS		
	군필자	미필자	여성	군필자	미필자	여성
	β			β		
남성성	.111	.164	-.257**	.208	.061	-.151*
여성성	-.068	-.126	.028	-.244*	.184	.216**
군태도1	.204	.508***	.261**	.265*	.504***	.471***
군태도2	.079	.046	.165*	.150	-.108	.132
R^2	.096	.325***	.160***	.247**	.305***	.363***

* $p < .05$ ** $p < .01$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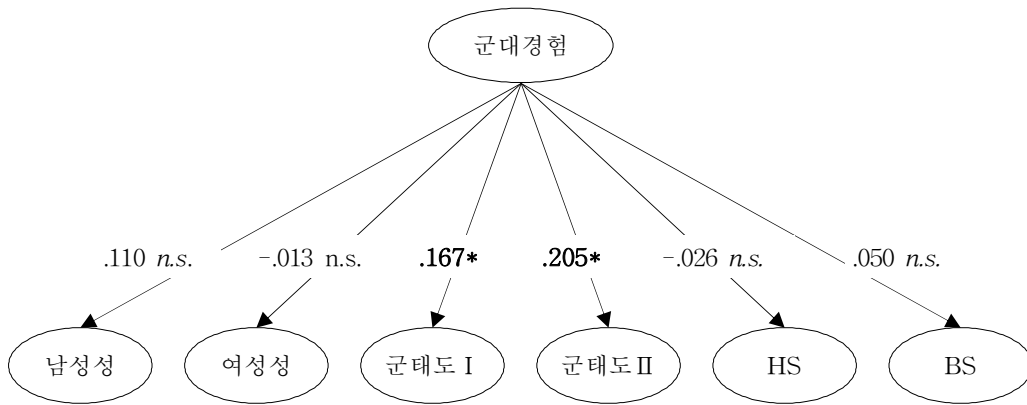


그림 1. 군대경험이 변수들에 미치는 영향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그림 1). 여성 집단을 통제 한 후 군대경험의 유무를 더미변수로 설정하여 군필과 미필 두 집단을 단순 회귀분하였다. 그 결과 군대경험은 군대에 대한 태도 I($\beta=.167, p<.05$)와 부정적인 태도($\beta=.205, p<.05$)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성성이나 성차별주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논 의

본 연구는 군대의 남성문화를 경험한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이 공존하는 대학교를 중심으로 군복무 경험과 군대에 대한 이데올로기가 한국 대학생들의 군대에 대한 태도와 성역할정체감, 그리고 성차별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 군복무 경험과 성차별문제와의 관련성을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설정된 연구 문제를 검토하여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군복무 경험은 남성성이나 성차별의식을 강화하는데 보편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

았다. 하지만 남성성이 강한 남성에게 있어서 군복무 경험은 성역할정체감을 강화하며 여성에 대한 온정적 성차별의식을 강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둘째, 군복무경험이 유의하게 영향을 미친 변수는 군대에 대한 태도였다. 군대에 대한 태도는, 결과에 명시하지 않았으나, *t*검증 결과에서도 군필과 미필 사이에 유일한 차이를 보인 변수이다($t(154) = 2.11, p<.05, t(154) = 2.60, p<.05$). 이러한 차이는 미필자와 여성 집단에서도 나타났다. 여성 집단의 군대에 대한 태도II는 미필 집단의 태도 보다 높았다($t(245)=.480, p<.001$). 특히 여성성이 강한 여성이 군대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이었는데 이것은 군복무가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는 미필자에 비해 군대에 갔다 와야 진짜 남자가 된다고 생각하는 여성의 기대감의 결과라 볼 수 있으며, 그런 기대감을 갖는다는 것은 우리사회의 군대에 대한 이데올로기가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군필자들의 군복무에 대한 평가가 높은 것은 군복무경험이 자신에게 유익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일 수도 있고 (백종천, 1985, 장용선, 1991, 이철위, 1991), 국

가를 위한 희생으로만 설명되어질 수 있는 단절된 시간에 대한 보상적 심리 때문일 수도 있다(권인숙, 2009).

셋째로 군대에 대한 태도가 온정적성차별주의에 미치는 영향이 세 집단에서 모두 유의하게 나타난 것이다. 군복무 경험의 유무와 성차를 떠나 군대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인 사람일수록, 다시 말해 군복무 경험이 남성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여성에 대한 온정적 성차별의식이 높았다. 특히 군복무경험은 온정적 성차별주의에 미친 영향이 더 컸는데 이러한 결과는 남성성이 강한 군필자가 군복무경험을 통해 가정과 여성의 보호자로서의 의식이 더욱 공고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이에 대한 기대감이, 강한 남성으로부터 보호받고 싶어하는 여성과 남성으로서의 의무와 책임감에 걸들여진 미필자들에게 더욱 강하게 반영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다.

군대가 갖고 있는 강한 남성의 이미지는 아직 군대를 경험해 보지 못한 미필자와 여성사이에 더욱 강하게 나타났다. 미필집단의 적대적 성차별주의가 높다는 것도 군필자의 온정적 성차별주의와 비교해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결과는 미필자가 군필자 보다 여성에 대한 적대적 감정이 더 강해서가 아니라 군필자들이 군대경험을 통해 여성에 대한 온정적인 성차별의식이 더욱 강화된 것이라 생각해 볼 수 있다. 군필자의 적대적 성차별의식이 약해지거나 없어진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넷째,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성차별의식에 세 집단 간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적대적 성차별주의(HS)는 비전통적인 여성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며 온정적 성차별주의(BS)는 전통적인 여성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이

다. 양가적성차별주의 이론을 주장한 Glick과 Fiske(1996, 2001)에 따르면 적대적 성차별과 온정적 성차별 사이에는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어서, 적대적 성차별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수록 온정적 성차별의식 가지고 있다. 남성의 성차별주의가 높을수록 여성들은 남성의 체제 정당화 논리를 수용할 가능성이 높고, 여성들은 자기 방어의 수단으로 HS보다는 남성의 보호와 애정이 약속된 BS를 수용하는 기능이 높기 때문이라고 지적하였다. 안상수 등의 연구(2005)에서는 HS와 BS의 상관에 있어 남성이 여성보다 유의하게 낮은 상관율, 그리고 HS와 BS 모두 남성이 여성보다 높은 점수를 보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세 집단 모두 HS와 BS간에 뚜렷한 정적상관을 보였지만 집단 간 상관에 유의한 차는 보이지 않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성차별 의식이 남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성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군대는 여성과 남성에게 요구되는 사회적 성역할을 규정할 수밖에 없는 특수한 환경 속에 놓여 있다. 힘든 군사훈련을 이겨내기 위해서 강한 남성성을 주입해야만 하며 남성에게 여성을 지키는 수호자로서의 의미를 부여하며, 여성을 보호받는 존재, 약한 존재로 형상화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는 여전히 군대를 통해 만들어지는 독립적이며 강한 남성을 기대하며 그런 남성을 요구하며 또 그렇게 길러져 왔다.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성차별 의식은 군복무 경험을 통해 강화되기도 하지만 사람들의 의식 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군대에 대한 이데올로기는 더 넓고 깊게 영향을 미친다. 이데올로기가 두려운 것은 성차별의 심각성을 제한하며 합리화하기 때문이다.

지적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문제는 성차별이 남성이 여성에 대해 품고 있는 학습된 편견과 차별적인 태도뿐만 아니라, 여성 스스로가 여성을 수동적이고, 남성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존재로 인식한다는 데 있다.

본 연구는 대학생들의 성차별의식을 군대문제와 연관 지어 검토해 보았다. 군대 이데올로기와 성차별의식과의 관계를 보다 다양한 연령층의 다양한 집단을 통해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군복무경험을 군필과 미필의 단순한 분류가 아닌 복무한 군대의 특성이나 관행, 제대 후의 경과 기간 그리고 개인적 관계들이 반영된 연구와 군복무 이전에 이미 형성된 성역할정체감과 성차별의식에 관한 다양한 요인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 권오분 (2000). 군대경험의 의미화 과정을 통해서 본 군사주의 성별 정치학: 남녀공학대학 사례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여성학과 석사논문.
- 권인숙 (2000). 우리들 삶 속의 군사주의: 여성의 군사주의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여성평화아카데미 2000년 봄강좌.
- 권인숙 (2001). 군사주의와 여성-징병제도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 인권학술대회발표논문.
- 권인숙 (2005). 대한민국은 군대다. 청년사
- 권인숙 (2009). 군대와 성평등(양현아 편), 제 1부 4장 징병제의 여성참여: 이스라엘과 스웨덴의 사례연구를 중심으로. 119-163.
- 김영희 (1988). 한국형 성역할검사(Korean Sex Role Inventory)개발 연구. 아시아여성연구, 27, 153-182.
- 김지영, 김기범 (2005). 한국여성에게 적용되는 사회문화적 규범의 형성과 심리적 기능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0(2), 157-171.
- 김현영 (2002). 병역의무와 근대적 국민정체성의 성별정치학. 이화여자대학교 여성학과 석사논문.
- 김혜래 (2006). 청소년의 성역할정체성 척도 개발에 관한 연구. 사회연구, 7(2).
- 김혜숙, 안상수, 안미영, 고재홍, 이선희, 최인철 (2005). 적대적 성차별주의와 온정적성차별주의가 여성 하위 집단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9(3), 117-133.
- 김혜숙, 장재운 (2002). 여성 공무원 리더의 효율성, 성정체성, 삶의 만족도와 조직 성차별 문화.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8(2), 191-208.
- 김문숙 지음, 이현정 옮김 (2007). 군사주의에 갇힌 군대. 도서출판 또 하나의 문화.
- 박진환 (2004). 담론의 활용을 통한 대학 내 군대문화의 재생산. 한양대학교 인류학과 석사논문.
- 박진환 (2006). 韓國の大學生における軍隊の再生産-懲役制度 ‘談話’ 日常的實踐. Asia Culture Forum, 5-19.
- 백종천 (1985). 군복무경험이 국민의식에 미치는 영향 분석. 현대사회연구소 85-8 연구보고.
- 사랑 (여성모임) (1993). 남성연구: 때론 입지만 함께 가야할 반쪽에 대한보고서. 나라사랑.
- 안상수, 김혜숙, 안미영 (2005). 한국형 양가적성차별주의척도(K-ASI)개발 및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9(2), 39-66.

- 안상수, 백영주, 김인순, 김혜숙, 김진실 (2007). 한국형 다면성별의식검사 개발 및 타당화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양현아 (2009). 공익과 인권15 군대와 성 평등,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경인문화사.
- 오미영 (2001). 군사화에 의한 젠더위계체계강화. 신라대학교 여성학과 석사논문.
- 유혜정 (2006). 남성 섹슈얼리티의 사회화 기제로서 군대 성문화 연구. 상지대학교 여성학과 석사논문
- 이미경 (2003). 한반도 분단구조 속의 여성: 가부장적 군사문화지배하의 남북한 여성. 국제지역연구, 7(2), 229-253
- 이민주 (1995). 군대경험이 권위주의와 성역할 전형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 연구-대구지역 대학생을 중심으로-. 계명대학교 여성학과 석사논문.
- 이철위 (1991). 복무청소년에 대한 관심의 전환. 청년연구, 14, 3-22.
- 장용선 (1991). 군복무가 후기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 청년연구, 14, 23-67.
- 장필화, 조형 (1991). 한국의 성문화-남성 성문화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한국 여성 연구소. 여성학논집, 8.
- 정진경 (1990). 한국 성역할 검사 (KSRI). 한국심리학회: 사회, 5(1), 82-92.
- 조성숙 (1996). 군대와 남성. 한국사회학회 후기사학회대회 발표문, 220-225.
- 青野篤子編 (2009). 젠더-의心理學ハンドブック, (2) 性差別主義.ナカニシヤ出版
- Glick, P., & Fiske, S. T. (1996). The ambivalent sexism inventory: Differentiating hostile and benevolent sexis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70, 491-512.
- Glick, P., & Fiske, S. T. (2001). Benovolent Sexism.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Vol. 33, 115-188.
- Goodwin, S. A., & Fiske, S. T. (2001). Power and gender: The double-edged sword of ambivalence, In R. K. Unger (ED). *Handbook of psychology of woman and gender*. New York: Jone Wiley & Sons. pp.358-366.
- (宇井美代子 (譯) (2004). 權力とジェンダ-: アンビバレンスという兩刃の劍, 青野篤子編 (2009), 젠더-의心理學ハンドブック, 北大路書房.
- 田島信元 (2005). 發達理論からの心理學入門. pp.103-136
- 鈴木淳子, 柏木恵子 (2006). 젠더-의心理學-心と行動への新しい視座, 第2章 젠더-役割의態度變化と文化・社會變動培風館
- Viki, G. T., Abrahams, D., & Hutchison, P. (2003). The “·rue” romantic: Benovolent sexism and paternalistic chivalry. *Sex Roles*, Vol.49, 533 -537.
- 논문 투고일 : 2010. 05. 10
1 차 심사일 : 2010. 07. 02
2 차 심사일 : 2010. 11. 05
게재 확정일 : 2011. 02. 05

A Research on Gender-role Identity, Gender Discriminative Consciousness and Attitudes toward Military Service of Korean College Students

Mihye SHIM

Yumi ENDO

Kansai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analyze male oriented military culture and gender discrimination. It examined whether the experience of military service would affect the attitude of Korean college students, gender role identity, and sexism by classifying 317 college students into three groups; males who have completed military service, males who haven't completed military service, and a female group.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in general military experience did not enhance awareness of gender identity nor affect attitudes toward gender discrimination, but significantly enhanced masculinity in some males who completed military service was a major factor in strengthening masculinity and benevolent sexism. Second, males who completed military service and women had a more positive view of the military than males who had yet to serve in the military. Third, regardless of military experience and gender, military experience was perceived to enhance benevolent sexism towards women. Fourth, all three groups showed a strikingly positive correlation in hostile sexism and benevolent sexism. However, they did not show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correlation of groups. Tough these results indicate that deep-rooted gender discrimination in Korean society is enhanced by military experience, it also confirms the significance and impact of the reality of the military ideology.

Key words : the experience of military service, gender role identity, hostile sexism, benevolent sexism